

Zurich의 Beazley 인수 제안과 글로벌 사이버 보험 시장의 변화

한 민 섭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삼성화재 프로



최근 스위스의 글로벌 보험사 Zurich가 영국의 Specialty 보험 전문사인 Beazley에 공식적인 인수 제안을 건넸습니다. 제안 금액은 약 84억 파운드(한화 약 16조 원)에 달하며, 이 거래가 성사될 경우 2016년 ACE가 Chubb를 인수한 이래 보험업계 최대 규모의 M&A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인수 제안의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1. **Beazley의 독보적 가치:** Beazley는 런던 로이즈(Lloyd's) 시장의 Top Player로, 특히 사이버 보험과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 분야에서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익성과 특화된 전문성은 대형 보험사들에 늘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2. **Zurich의 포트폴리오 확장:** Zurich는 북미와 유럽 시장 내 Commercial 보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Beazley 인수는 Specialty Lines에서의 지배력을 단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3. **시장 가치의 재평가:** Beazley의 실적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자본력이 풍부한 대형 보험사들이 이를 적기 매수(Target) 기회로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인수 제안에서 주목해야 할 분야는 **사이버 보험**입니다.

글로벌 사이버 보험 시장은 매년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 중입니다.

2025년 약 200억 달러(약 28조 원) 규모에서 2030년대 초반에는 최대 1,000억 달러(약 140조 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현재는 북미 시장이 약 35~40%로 1위를 지키고 있으나, 규제 강화와 디지털 전환이 빠른 아시아 태평양(APAC) 지역의 성장세가 가장 가파릅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딥페이크나 정교한 피싱 등 해킹 위협은 커졌지만, 보험사들 또한 AI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사고를 탐지하고 리스크를 정교하게 산출하는 인슈어테크(InsurTech)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자동으로 가입되는 임베디드(Embedded) 보험 형태도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현재 Cyber 보험의 3대 주요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랜섬웨어: 단순 암호화를 넘어 유출 데이터를 볼모로 협박하는 '이중 갈취' 방식으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2. 공급망 공격: 특정 서비스 마비 시 수많은 기업이 동시 피해를 입는 '상관관계 리스크'는 보험사의 최대 난제입니다.
3. 국가 지원 해킹: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국가 차원의 핵심 인프라 공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킹 그룹의 미국 국가기관 및 핵심 인프라 공격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최근 사이버 보험 시장은 단순 '가격' 경쟁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Beazley가 그 선두에 있습니다. 통합 사이버 에코시스템 (Full Spectrum Cyber) 및 맞춤형 솔루션 제공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통합 사이버 에코시스템 (Full Spectrum Cyber)

1. 사전 예방(Pre-emptive): 자체 보안 회사인 Beazley Security를 통해 피싱 시뮬레이션, 랜섬웨어 준비도 평가, 보안 취약점 점검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2. 신속 대응(Responsive): 사고 발생 시 즉시 투입되는 인하우스 보안팀과 법률, PR 전문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사고 조사 속도를 극대화합니다.
3. 적응형 방어(Adaptive): 25,000건 이상의 사고 처리 데이터를 분석하여, AI 딥페이크나 신종 랜섬웨어 같은 최신 위협에 맞춰 보험 약관과 방어 전략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고객 맞춤형 솔루션

1. 대기업에는 비즈니스 중단 및 규제 대응 담보를 제공
2. 중소기업(SME)에는 원스톱 사고 대응 패키지인 BBR(Beazley Breach Response)을 통해 즉각적인 전문 지원을 수행

Zurich의 Beazley 인수는 단순한 규모의 경제 실현을 넘어, 급변하는 디지털 리스크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전통적인 보험 모델이 사고 후 보상에 집중했다면, 비즐리가 보여준 '통합 사이버 에코시스템' 모델은 보험사가 고객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리스크 파트너'로 진화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결국 미래 보험 시장의 승자는 방대한 자본력과 고도화된 기술력, 그리고 정교한 언더라이팅 전문성을 결합하여 새로운 위험(Emerging Risk)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Zurich의 이번 행보는 사이버 리스크를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으려는 글로벌 보험업계의 거대한 조류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